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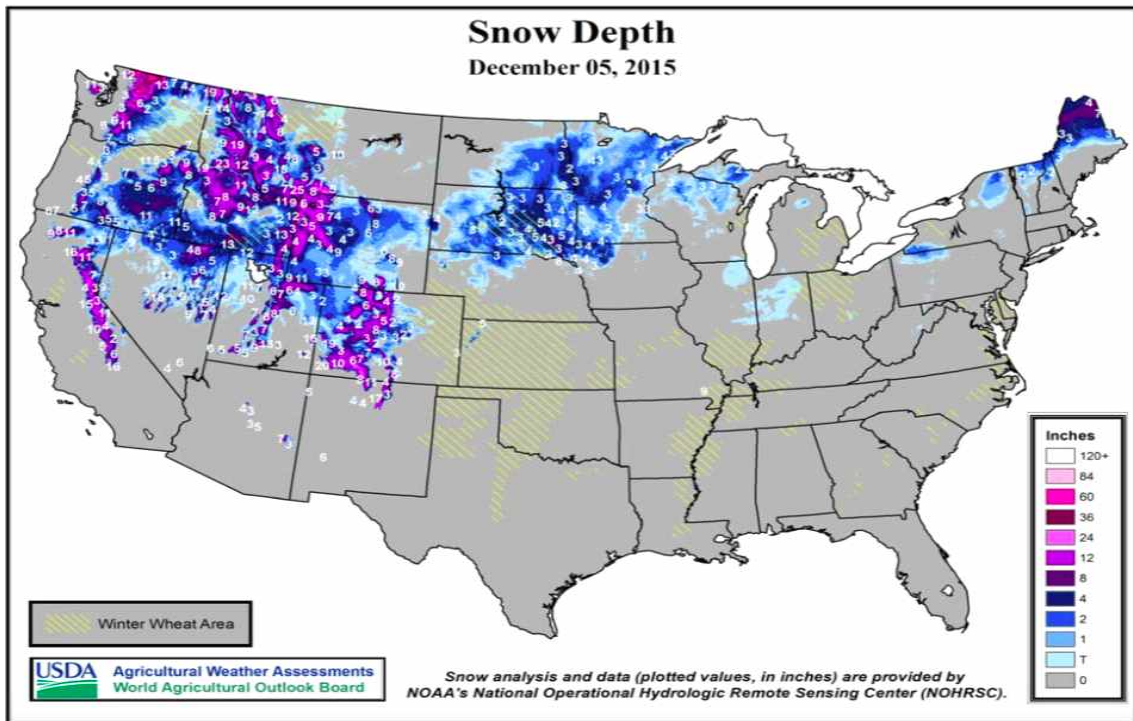
12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9)

□ 미국 기후 현황(11/29~12/05)

중서부 지역에는 주초반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남서부 내륙에는 비가 내렸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사이 북서부 옥수수 재배지역 일대에는 4~10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다. 같은 기간, 애팔래치아 산맥 남부에는 2~4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애틀란타 남부 일대에서는 주 중반부에 비가 내려 농작업이 또다시 지연되었다. 플로리다 남부에는 한주 내도록 비가 내렸다. 이와 달리 캘리포니아 남부와 대평원 일대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대평원 일대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따뜻한 기온 탓에 산간 지역에 쌓였던 많은 양의 눈이 녹아 내렸다. 대평원 남부지역에서는 면화수확 등 수확작업이 재개되었다. 북서부 일대, 특히 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이번 비로 내륙 지역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북부 내륙산간의 서쪽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15°F 정도 기온이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북부와 노스 다코타 일대에서도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1/30~12/06)

미국 전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북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2°F 이상 높았다. 록키산맥과 대평원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비가 내렸지만, 테네시 계곡 일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5인치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1/29~12/5)

■ 유럽: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가뭄이 있었고, 보다 북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영국과 프랑스 북동부, 폴란드, 발칸 북부지역에서는 주초반 10~75mm의 비가 내렸다. 토양수분은 겨울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온도 평년보다 4~6°C 정도 높아 냉해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11월 말부터 겨울작물의 휴면이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북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생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겨울밀이 11월 말부터 휴면기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기온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다시 자라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30일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서부에서는 비가 내려 가뭄에 지친 농지를 적셔주었고, 러시아 남부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밀 생육을 도와주는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러시아 중부 일대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렸다. 지난 한달 가까이 내린 비 덕분에 90일 이상 지속되었던 가뭄은 거의 대부분 해소되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러시아 중남부 일대에서는 주중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2~5°C 이상 높았지만 주말동안 평년보다 5°C이상 기온이 내려가면서 겨울작물의 휴면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불가 지역에서는 2~15cm 내외의 눈이 내렸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 한달간 내린 비는 겨울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남부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10~45mm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에서는 이상 한파가 주춤하는 사이 겨울철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 북부 고원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2°C정도 기온이 낮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10내외, 보다 남부지역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부 평원과 Yangtze 협곡 일대에 쌓였던 눈은 대부분 녹아내렸다.

■ 호주: 서부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려 겨울작물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고, 농작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남동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보리와 밀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보다 북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 북동부, 퀸즐랜드 남부지역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다.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1°C 정도 높은 기온이 이어졌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중반까지 올랐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주 후반에는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Cordoba, Santa Fe, Entre Rios 등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30°C 초반까지 올랐다. Santiago del Estero, Salta 등 북서부 일대에서는 10~5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Formosa, Chaco 등 면화 재배 지역에서는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렸다. Chao 남부와 Santa Fe 북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화와 여름 작물의 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부지역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을 기록했으며, 낮 기온은 20~30°C 초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9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p 낮은 수준이다.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률은 각각 54%, 58%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북부와 Mato Grosso, Tocantins, Minas Gerais 등에서는 25~50mm의 비가 내렸다. 남부 곡창지역인 Mato Grosso do Sul, Minas Gerais 남부 등에서는 지난 한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30°C 초반까지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따뜻하고 수분이 비가 적절히 내리는 날씨가 이어져 사탕수수와 커피 등의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북부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40°C 초반까지 오르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